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3호 [루게 제25011호] 주제104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성된 위협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 지도

최근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세는 전쟁경계로 치달고있다.

지난 8월 4일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등대고 전 전선에서 재개된 남조선피괴군부장패들의 대북심리전방송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있으며 악질반동단체들을 동원하여 벌리고있는 대북베라살포작전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대북심리전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겨냥한 로골적인 침략전쟁행위이다.

이는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일 피괴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 재개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최후통첩을 들이댄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도발광기에 열이 뜬 남조선피괴군부장패들은 주제104(2015)년 8월 20일 오후 또다시 잊지도 않는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신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를 향하여 수신탄의 포탄을 판사하는



8월 20일 17시 남조선 피괴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회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내보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결심을 승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적들이 48시간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수단들을 격파사격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과 있을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여 해당 전선으로 급파되였다.

그리고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된데 맞게 해당 지역의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안전보위, 인민보안, 사법검찰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을 준전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또한 적들의 로골적이고 불의적인 침략으로 인한 현 사태의 진상을 낱알이 까밝히고 폭로하기 위한 대외부문 일군들의 임무와 과업이 제시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저질렀다.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조선피괴군부장패들의 이러한 정치군사적도발은 지금 나라의 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8월 20일 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장들과 국가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대외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는 8월 20일 오후 전선중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적들의 군사적도발행

위의 경위와 진상, 전반적적정에 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20일 23시현재 작전진입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적들의 전쟁도발행동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대응계획이 토의되였으며 불가피한 정황에 따라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격작전계획이 검토, 비준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 보도

8월 20일 오후 전선중서부지역에서는 남조선피뢰군부호전광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은 아군이 남측으로 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는 의지도 않는 구실을 내대고 아군민경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분별없는 망동을 부리었다.

그중 6발의 포탄은 아군 542, 543민경초소부근에, 15발의 포탄은 아군 250, 251민경초소부근에 떨어졌다.

이번 포사격도발에 의한 아군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신성한 영토, 조국보위초소에 대한 무지막지한 포사격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사태의 엄중성은 피뢰군부자체가 아직까지 아군포병의 발사원점도, 자기측 지역에 있어야 할 포탄의 낙탄지점도 확인하지 못하고 아군이 발사하였다는 포탄이 교사포탄인지, 소총탄인지, 로켓탄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군사적도발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는데 있다.

어제는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전 전선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제재하고 오늘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우리측 지역에 술한 포탄을 쏘아대고있는것이 다음아닌 피뢰군부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도발행위이다.

조선인민군 사령부와 관련하여 20일 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된다.

지금 우리는 남조선피뢰군부방위가 48시간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무모한 도발행위는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남조선피뢰군부호전광들은 격노한 아군전선련합부대 장병들의 보복열기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주제 104(2015)년 8월 20일 평양

선군은 승리, 우리의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뜻깊은 선군절을 마중해가는 우리 조국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전선중서부지역에서 감행된 남조선피뢰군부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

조국보위초소들을 지켜선 전선련합부대 장병들만이 아니라 천만의 군민모두가 격노하였다.

불은 불로써 다스리고 무지막지한 호전광들은 무지비한 불세례로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복수의 불바람을 만장악한 백두산총대가 대답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렇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전체 군민의 선군의지속에 진정한 평화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

지나온 나날에 그러하였듯이 오늘도 매일도 승리는 선군으로 무적의 힘을 키워는 우리에게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8월 25일은 4월 25일과 더불어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말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른 우리 조국의 위상은 바로 이날과 잇닿아있습니다.》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정령 이날을 때어놓고는 못할수 없는것이 위대한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승리와 영광, 존엄과 자부심으로 가득찬 우리의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더욱 위창찬란한 래일을 8월의 이 뜻깊은 명절이다

말하여주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넘겨받으시던 때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늘 자신에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잘해나가자면 당과 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사업과 군대사업에 힘을 쏟도록 하시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사업과 군대사업을 맡아보면서 거기에 큰 힘을 넣어 당과 군대를 불패의 혁명대로 강화발전시켜왔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주제 49(1960)년 8월 25일 군위 서울 유정수제 105명크사단을 현지도하는것으로부터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고있다고 강조하시었다.

보통 사람들은 정치가, 국가지도자들의 첫 정치활동을 깊은 관심속에 주시하곤 한다.

명도자의 첫 정치활동을 통하여 그의 정치적절단과 리상을 가늠해볼수 있고 차후 정치활동의 방향을 확증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인민군부대에 대한 현지도는 바로 그이께서 지난 기간에 간직하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신념과 선군의지의 발현이었으며 선군혁명명도의

시작을 알리는 력사의 선언이었다.

인민군대가 자기 수명, 자기 당을 목숨으로 사수할데 대한 구호를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 전투정치훈련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여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질데 대한 사상, 우리 식의 국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데 대한 사상...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에 주신 가르치심은 곧 그이의 혁명무력건설구상이 집대성된것으로서 우리 당과 국가가 군건설, 국방력건설에서 일관하게 전지해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하지만 그때 세계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혁명이 승승장구하자면 선군을 해야 한다는것,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아직 모르고있었다. 바로 이날과 더불어 사회주의정치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정치방식이 탄생하고 선군절이라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명절을 탄생시키리라는것을 그때 누구도 몰랐다.

지난 50여년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들어오는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께서 선택하신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에 대하여 실지체험으로 절감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원수들의 극도로 달한 군사적위협과 경제붕괴를 맞받아 짓부시고 자주적살을 지키내기 위한 치열한 대결전의 나날이었다. 바로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신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선군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이라는것 그리고 실사 그 길에 어떤 희생이 따르다 해도 굴함없이 헤쳐 가이어 최후승리를 안아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였다.

선군은 곧 자주이고 존엄이며 애국, 애족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

이런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룩한 자욕을 다박술초소에 찍으시어 선군정치와 조선의 후손만대의 전략적로선임을 선언하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사생결단의 전선결정에 계시었다.

하나 그때엔 인민이 다는 알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 헤쳐오신 선군의 길이 얼마나 시련에 찬 길인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인민이 고통하고 경제적인난이 중첩되지만 반드시 이길로 가야 승리의 종착점에 도달할수 있다는것을 그때 벌써 확신하고 계시었다.

이 나라의 무수한 길들마다에, 굽이 굽이 뻗어간 령들마다에 어버이장군님의 선군의 자욕이 적혀있지 않은 곳 있는가.

이른 새벽에도, 길고길은 밤에도, 눈비내려도, 찬바람 시정없이 몰아쳐와도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들을

우리의 국력,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고있는 세기적번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쳐오신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온 세계앞에 실증하시었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오늘도 이 땅우에 높이 울리고있는 이 노래는 55년전 8월의 뜻깊은 그 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선군으로 우리 조국을 이끄시어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갈 원단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으며 우리의 총창우에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또 한분의 백두산현충원위인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무력의 전투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

적들의 그 어떤 무분별한 도발도 과감히 짓부시고 자비를 모르는 보복타격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밀부리 채 들어내고야말 무적필승의 기상,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선군조선의 힘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시여! 명명만 내리시라! 단숨에 달려가 무분별한 도발자, 평화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남김없이 소탕하리라.

본사기자 백영미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악된 백두산혁명강군은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 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바나

구 바 공 산 당 중앙 위 원 회 제 1 비 서
구 바 공 화 국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구 바 공 화 국 내 각 수 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구바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구바공산당과 구바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반제국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맺어지고 공고발전하여온 우리 두 나라사이의 형제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제 1 위 원 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동 지

주제104(2015)년 8월 19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로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로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데 기여할 한마음안고 돌격대에 탄원한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박정철, 순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부원 유은하, 신의주혁명사적지탐사속성소 로동자 리수양, 평성시상하수도사업소 로동자 박성철, 최현종이공장 로동자 김광봉, 최현시 추경1동 51인민반 최금숙은 들끓는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건설자들의 생활에 친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지난 시기 중요대상건설지점에서 모범을 보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동대원구역공업종합상업 로동자 박춘봉도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청천강계단식

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하여 공사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있다.

평안남도인민혁명 연구사 김광명은 발전소건설장에서 현장지도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당의 대자연계조수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최현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수의방역소 로동자 강철순은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주체사상로적전시관 강사 리미향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자의 삶을 빛내일 일념만으로 발전소건설을 물질방면으로 도와주었다.

청천강변에 로동당단체로서의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할 열의안고 신의주사업단별소 로동자 김수현은 성의있는 지원으로 돌

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으며 구장세멘트공장 로동자 리경애도 건설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었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막한 승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로동신문사 산하단위 부원 방문영은 여러차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출판지도국 중앙출판물보급사 로동자 로정립, 봉성구역원의봉사사업소 로동자 김명화, 중앙정보통신국 부원 전경주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공민적향심을 바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와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에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신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에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신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 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제 1 위 원 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동 지

2015년 8월 14일

아바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근하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수훈자인 강반석혁명학원 전 정치일군 김근하 20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훈장 하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2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신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에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신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에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신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가늘은 먹이작물의 시험재배에 성공한데 대해 치하하시고 사료들의 이름을 《00국물》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 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힐란드판 제인단 인터넷트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올렸다.

일본의 교도통신, 만파TV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

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트홈페이지, 도이힐란드판제인단 인터넷트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2015년 동아시아축구대회 여자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여자축구선수들을 따뜻이 맞아주시 소식을 전하였다.

민주공화국, 도이힐란드, 만파, 네발, 튀르키예, 베네수엘라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의 기지높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언제 완공을 앞당기는 마지막 공격전의 불길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건설이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기세좋게 솟아오르고있다.

건설진재공업성에서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물질방면의 지원밑에 언제우안과 좌안의 마지막 4개 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전투에 진입하여 편일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스런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향하여 힘차게 달리기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이후 전세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수백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위령전의 불길을 활화산처럼 지펴올려 이미 연수백m길이의 언제좌우안과 중심부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을 계속하였다. 단 36시간만에 언제우에서 작업하던 3호, 1호 언제기둥기를 해체한 건설자들은 기둥기가 놓였던 블록들에 대한 편속타입을 틀어대어 20일 총량 98.5%계산을 돌파하였다.

건설진재공업성과 그애 여러 건설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

들이 언제완공을 앞당기는데서 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를 마련하였다. 선별, 혼합, 운반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발휘하여 좌우안의 타입전투에 혼합물을 제때에 보충하고있다. 12블록콘크리트타입을 맞은 타입직장의 로동자들은 언제완공의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설 단위들사이의 협동과 연합작전을 더 잘 짜고들었다. 3블록의 환공으로 중심부의 무덤이 언제공사가 계속된 조건에서 우안의 8, 10블록과 좌안의 5, 11, 13블록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언제건설의 중요공정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치차처럼 잘 짜인 조직사업에 따라 중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불과 36시간만에 3호와 1호 언제기둥기를 편이어 해체함으로써

마지막돌격전의 결정적돌파구

년간계획완수자대렬이 늘어남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함흥모방직공장에서 년간계획완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8일까지 70여명의 여성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중 4명의 여성로동자들은 2년분계획을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스런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향하여 힘차게 달리기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윤택이 애국충정의 한마음 안고 인민소비품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내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떨쳐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 갔이 들어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신선전, 화신선동을 참신하게 벌이고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였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로력조직과 자체보장,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생산정성화의 물파를 열어갔다.

소모방직, 편직사, 방모방직 직장을 비롯하여 여러 직장, 종합작업단의 일군들은 전투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이해주면서 로동자들을 위훈창조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땀땀이 들어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리였다.

1직포직장의 선군시대 공로자 정은식, 조모방직직장의 공훈방직공 채옥선, 방동이제인 유영애, 유영금동무들은 지난 3월 31일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계속혁신을 일으켜 지난 8월까지 2년분계획을 수행하는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직포방직직장의 박송희, 류정숙, 정은식, 조모방직직장의 고복실, 박순옥, 2, 3직포직장의 김남희, 손옥선, 김일성동무들은 설비관리, 기대관리를 간직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온 공로가 크나큰 혁신을 일으켜 지난 5월에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며 이어 7월까지 년간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건설진재공업성의 홍영길, 김춘복, 제모로종합작업단의 김성숙, 심유명직장의 김정심, 고명화, 박유순, 완성직장의 전명수, 정향숙, 리경림, 한은숙동무들은 지난 5월에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계속혁신을 일으켜 8월까지 2년분계획을 1.6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편직사직장의 정방공들인 리옥향, 전금향, 소면공 김일성, 전사공 한일심동무들도 당의 은전공을 마련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매일 계획을 1.5배, 최고 2배로 넘쳐 수행하여 8월 초까지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박동석

과학기술전당의 실내 및 야외 과학기술전시장 전시준비 마감단계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인 과학기술전당이 국보적인 명칭인 진흥로로서의 자격과 웅장한 자태를 뚜렷이 드러내고 그 운영을 위한 준비사업에서 시간을 주름잡는 기적들이 창조되고있는 가운데 실내 및 야외과학기술전시장 전시준비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조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교육위원회와 국가과학원, 인민대학습당과 사회과학원, 3대혁명전선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과학기술전당의 사명에 맞게 부

문발과학기술지식을 특색있게 보급할수 있는 실내 및 야외과학기술전시장에 전시할 구체적인 전시대상들에 대한 학술안을 빠른 기간에 훌륭히 연구완성하였다.

그에 의하면 과학기술전당의 실내 및 야외과학기술전시장은 과학기술성공들을 소개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종전의 전시관들과는 달리 새 세기 사회교육기지로서의 성격에 맞게 참관자들이 보편적인 과학기술원리와 방법, 과학기술의 어색와 오해, 메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것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성공들을 깊이 체득할수 있도록 조작형, 가동형 전시물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

대의 연시수단들과 모형, 사본, 도판 등을 배합하여 이해를 쉽게 꾸러지게 된다.

여기에는 어린이공간, 가상과학실험실, 과학탐구관, 기초과

학관, 첨단과학기술관 등 주제별, 과학기술분문에 따라 다양한 전시관들과 전시구역들이 형성되게 된다.

학술안이 완성된데 맞게 평양건축종합대학, 중앙산업미술지도국,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낫과 밭이므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전시대상들을 인식교양적의가 크고 직관성과 과학기술보급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형성하기 위한 전시형성안작성을 최단기간에 끝내였다.

국가계획지도국,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은 과학기술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려는 드높은 열의를 안고 전시품제작을 위한 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제때에 완성함으로써

전시품제작을 앞당겨 끝낼수 있게 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우리 조국이 세계를 앞서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도약대를 마련한다는 크나큰 궁지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인민보안부,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경공업성, 해당 단위들에서는 낫과 밭이므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전시대상들을 인식교양적의가 크고 직관성과 과학기술보급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형성하기 위한 전시형성안작성을 최단기간에 끝내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는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창조물 과학기술전당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조선의 걸출한 은 세상에 다시금 보여주게 될것이다.

강철웅

핵전쟁불집을 러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

피뢰군부불한당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전형적인 복침공격연습, 핵시현정행이러는것은 이미 만천하에 날날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내외관망들은 수많은 최신행동작전대대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개하고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쟁의 성격을 띤 도발적인 훈련들을 미친듯이 벌여놓았다. 우리의 전략적중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부터의 중장거리정밀타격과 신속기동타격능력을 속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진행되었으며 사상 처음으로 북핵핵심시설 타격작본인 《맞출형역전》이 연습에 적용되었다. 그에 대한 남조선간첩 미제침략군사령관은 《실현가능한 세나리오에 기반한 연습》을 통해 《밀수입우수행에 대한 가지는 훈련》을 하였다고 떠들었다.

올해에도 호전광들은 《련합작전계획을 수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게 된다고 판교하였다. 이것이 북핵선제 공격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할안정하고 피뢰군과 행정기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총체적비상태》 《총체적대응》 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는 감히 《수뇌부대》와 《형량정벌》을 작전일부로서는 남조선미국련합사단이 투입되고있으며 모든 작전지휘소들이 전개된 상태에서 전쟁연습은 나날이 절정에 달하고있다. 이 도발적이며 위험천만한 복침불장년소동이 언제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지 누구도 알수 없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최근에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몇달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온것》이라느니, 《현 상황과는 판계가 없다.》느니 하면서 저들의 호전적행동에 대한 내외의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조소만을 시아 낼뿐이다.

반공화국도막으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사태를 전쟁도발로 이어가려는것이 미국과 피뢰군부불한당들이 추구하고 있는 흉악한 기도이다.

최근 남조선피뢰들은 남조선과 그것들 말해지고있다. 얼마전부터 피뢰들은 전선사 부 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그것을 구실로 반공화국비밀모략전을 재개하였다. 인간스레기들과 각종 보수단동단체들이 피뢰당국과 군부의 로골적인 추종들이 우리의 존엄을 체도분 비난하는 불순한 내용의 배라들을 매일같이 살포하고있다. 한편 피뢰군부대기뢰들은 《강경책》 단호한 응징》을 떠벌이며 전연에 배치된 모든 부대들에 《대북경계감파지시》를 내리고 《화력대기태세》에 진입시킨 상태에서 《대북시진》 방송을 재개하였다. 그야말로 전쟁전야에만 볼수 있는 음침이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정세하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단행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호전광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가독이나 침에 한 정세를 순간에 폭발시킬수 있는 위험한 판교으로 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 연습연습의 길에 나섰다. 《지뢰폭발》 사건을 합동군사연습행동의 좋은 구실로 삼으면서 사태를 한사코 전쟁발발국면으로 몰아가려는것이 바로 미국과 피뢰당국의 속심이다.

내외호전세력이 지금과 같은 협악한

사태속에서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는것은 그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은 안중에 없으며 추후하는것은 오로지 제2의 조선전쟁도발뿐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피뢰군부불당들의 당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은 시간문제로 되고있으며 민족의 운명은 시시각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가 미국과 피뢰들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행동을 감퇴시키는것은 당당한 리지이다.

우리는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탄복하게 짓밟으면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고 무모하게 날뛰는것을 절대로 목파할수 없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이 우리의 존엄을 체도분 비난으로 해치는것이라는것이 더욱 명백해진 이상 이제 우리가 남조선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도는 자위적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는것은 응당한 리이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강국이다.

며칠전 우리는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회를 통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도 최대로 거세질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침략자, 도발자들을 비참한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해줄수 없다.

심 철 영

동북쪽들의 힘을 앞당겨나가지

핵전쟁불집을 러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해외동포들 조국해방 70돐 경축행사 진행

핵전쟁불집을 러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핵전쟁불집을 러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지난 12일 남조선피뢰들은 경기도 포천의 한 훈련장에서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켜놓고 그 무은 《2015 통합대동맹력합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연습에는 각종 탱크와 장갑차, 자병, 전차, 폭격기, 직수기를 비롯한 수많은 무장장비들과 인원들이 투입되었다. 호전광들은 이날까지 훈련을 4차례 진행해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방송은 3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규모라고 전하였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전쟁불장년소문은 무엇때문에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깰지 못하고 핵전쟁위기에 접어들었는가를 하는것을 뚜렷이 입증해주고 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분열의 미국이 하루빨리 끝장나기를 에라게 바라고있으며 남조선당국이 외세의와 합동군사연습을 걸어서 우리 평화와 통일의 길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피뢰호전광들은 말로는 《대화》와 《협력》에 대해 운운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있어서는 대화와 협력을 필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8.15는 우리 민족의 통일 지향성이 어느때보다 고조되는 중요한 절기이다. 대화와 평화, 통일을 바란다면 응당 이날을 맞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적극 추후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보다싶어 피뢰호전광들은 북침을 가상한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광기적인 무력증강소동, 고조되는 전쟁위험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합동군사연습은 북침선제공격연습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남조선평화운동단체가 서울에서 투쟁 전개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백년숙적을 편드는 추악한 친일역적가문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백년숙적을 편드는 추악한 친일역적가문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백년숙적을 편드는 추악한 친일역적가문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일본의 재침략행위를 반대하여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일본의 재침략행위를 반대하여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일본의 재침략행위를 반대하여

반통일분자들이 러친 북침의 총포성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피뢰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투장비들이 투입된 속에 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한편 피뢰당국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전쟁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도처에서 벌여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사상 유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공적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시험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령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의 집중적도발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이번에도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에 대해 《투명성》이, 《방어적성격》이 아니라고 판교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정전협정의 준수》이 뛰니 하며 어중어중이름을 창민하는 명목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저류속의 숨통은 감출수 없었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불세출의 위인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경축행사 진행

조국해방 70세에 즈음하여 로씨야 나호드카, 캄보자, 도이칠란드, 적도기네, 에질트루제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 연회, 업적토론회,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13일과 14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배우산천출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처럼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편>, <마시명스키장>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반대성단체와 주재사상연구조직성원들이 초대되었으며 우리 나라 대표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올라지보스토크주 로씨야의 무성대표부와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경지부 일군들을 비롯한 수평님들께서 밝혀주신 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해방 70세와 조선로동당창건 70세를 맞으며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캄보자 크메르민중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일성주석은 항일무장투쟁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조선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와 무한한 헌신에

의하여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조선해방 70세를 맞으며 김정은각하와 조선로동당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도이칠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께서는 70년전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어 조선민족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투쟁하셨으며 진보적인류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었다고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해방후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는 조선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힘과 정의의 상

으로, 광명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고무적기적으로 되고있다.

적도기네민주당 행정부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진보적인류들의 다함없는 용모를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인민이 참다운 주인으로 된 강위력한 나라를 일떠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류사상 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걸출한 정치원로이시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는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킨 독창적이며 탁월한 령도이다.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평님들께서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반제투쟁을 위하여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참다운 국제주의의 귀감이며 그분들께서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진보적인류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조국해방 70세에 즈음하여 키르기스스탄, 이슬란드에서는 경축모임이, 핀란드에서는 강연회가, 에리오피아에서는 좌담회들이 6일과 7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즈 열> 인민통일공화국중앙당서기장사 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는 8월 15일 조선해방 70세를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내게하셨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제의 힘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장기간의 일제식민지통치와 미제와의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었던 조선땅에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는 존엄있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성국가로 건설되고야말것이다.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선문화협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신분은 바로 김일성주석이다.

나라가 해방된으로써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다. 또한 조선은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인민대중중심의 나라,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되었다.

세계주의 반제투쟁의 앞날을 향하여도 끄떡없이 강성국가로 향하여 비약하는 조선의 현실은 해방이라는 역사적사건을 떠나

조선민족재생의 은인

신문들 특집

조국해방 70세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프림보> 7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민족사에 특기할 사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 게재하였다.

반민권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민족이 외세의 발굽에 신음하던 시기 민족재생의 은인으로 솟아오르신분은 김일성주석이다.

주석께서는 국가적인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속에서 정교한 기간 무장투쟁을 벌리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

었다. 또한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키시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었으며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내고있다.

벨가리아신문 <이스크라>

신문무장대들을 비롯한 항쟁 김일성주석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해방 70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의 혁명가들은 무장투쟁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45년 8월 9일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에 돌입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각지에 조직된

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다.

해방후 조선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령도하에서 발전공부하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승리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70년의 빛나는 역사와 더불어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며 인민들의 자주적경제개혁과 나라의 부강민영의 전향적기회를 마련해준 역사적 조국해방의 날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조국해방 70세에 즈음하여 북조선선문화협회에서 3일 불레전을 발행하였다.

불레전은 <조선해방, 력사의 전환점>, <조선민족사에 특기할 사면>, <역사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불레전은 머리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8월 15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받은 날이다.

조선해방 70세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해방과 승리의 감동적인 사면들을 돌이켜보게 하는 의미깊은 계기이다.

이 기회에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다시한번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시한다.

[조선중앙통신]

일제의 죄악을 끝까지 결산할것이다

<태평양전쟁폐전 70년 담화>에 침략력사에 대한 반성과 사회의 뜻을 담아야 한다는것은 일본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요구한 중대문제였다. 이점 수상 무리야마는 자기가 발표한 담화를 아베가 답답할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전 수상 후쿠다의 한 국제토론회에서 6월 70주년을 맞이한 일본은 여전히 역사문제에 말쑥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개탄하였다. 자어 자민당내부에서도 아베의 담화에 침략에 대한 사회의 뜻을 담아야 한다는 진중론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나 간파하기 이룰데 없는 아베는 <태평양전쟁폐전 70년 담화>에 침략력사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사죄의 내용을 담지 않고 고조된 회피하면서 말장난질을 하였다. 이것은 일본사우라이족속들이 피하여온 과거를 가리키려고 하며나 집요하게 도를몰고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폭투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세계 일본은 <태동아공영권>의 야망에 사로잡혀 침략전쟁에 미쳐달라면서 아시아 전체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병행과 고통을 물려왔다.

남강도 일제침략자들에게 의해 우리 인민은 누구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조선의 땅과 골,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 지어 우리 나라의 표현시간마저 빼앗겼던 일제의 만행은 통사고급에 그 료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친인공노릇죄행과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않았는데 대하여 한반도의 사회 반성도 하지 않은것은 조선인민에게 대한 함울수 없는 우용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 못할 도덕이다.

더욱이 사람들을 경악케 한것은 집권자

민당이 폐말일이 가까와오자 일본군성노예 범죄와 같은 반인륜적악행을 가리키려고 고조한 오그랑수를 다 쓴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역사적사실을 뒤집어보려고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되는 갈수록 수 더 드러나는 법이다. 최근 비밀해제된 타이의 정보문서에서 1 500여명의 일본군성노예(조선인)로포명단이 확인되었다. 타이군회고사법부의 기록문부는 일본군성노예(조선인)들과 포로들의 어린아들까지 포함되어있었다. 또한 일제침략자들과 <위안소>가 있었고 일본군이 이를 관리했다는 군무원의 육성증언이 공개되어 일본반동들은 더 큰 국제적압박을 당하게 되었다. 세계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것은 나라 전체를 다시는 믿지 않고 자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과거죄행을 계속 부정하면서 청산을 회피하는 리엔에는 식민지지배정부를 그리워하며 되살리려는 흉악한 기도가 깔려있다.

일제배방 7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부활에 환장되어 미쳐달라하고있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법적으로 전쟁범죄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있는 일본은 특이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벌리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른바 평화에 대한 <기여>의 미명하에 <자위대>무력을 전세계에 들이밀려 하고있다. 일본은 <세계평화에 대한 공헌>이라는 미명하에 무력증강과 각종 전쟁범죄자료를 <제국시대>의 모습을 되찾고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자 7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집어있는 아베는 안전보장관련법안강령추진으로 일본의 평화가 흔들린다는 내외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핵무기없는 세계>건설

이라는 허황한 말외에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았고 <비핵3원칙> 즉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일본정객들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각지에서 일어났고 이것과 관련하여 <무수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일것을 요구하였지만 아베는 그것을 귀담으려도 않았다.

오늘날 일본은 아시아지역에 대립과 긴장을 몰아오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정요소로, 위협세력으로 되었다.

일본반동들은 인류에게 참화를 들이온 과거죄악의 역사를 되풀이하려 하고있다.

반인륜적악행에 대한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며 피로 얼룩진 과거를 미화하고 침략력사를 되풀이하는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일본은 70년전에 당한 재해보다 몇갈절 더 통렬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죄악의 역사를 청산하 반성할 대신 중국화와 제침의 길로 중달음치고있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중요성과 복수심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우리는 일제의 죄행에 대하여 끝까지 결산할것이며 민족의 쌍이코인한 원한을 기어이 풀고말것이다. 일본의 백년토끼를 결산하고 피땀한 원한을 풀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때때로 높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침의 독을 내뿜는 군국주의독사 아베와 그 일당이 조상들이 저지른 죄과를 그대로 덮어주고 절대로 살아가날수 없다는것을 철저하게 느끼도록 만

<조선 미국과 남조선을 무자비하게 라격할것이라고 경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도 최대로 거세될것이다>를 16일과 17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이외의 프레스TV방송은 조선은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핵무기에 보충으로 맞서던 어쩔나래의 청소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조선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대적인 최첨단공격과 방어수단을 갖춘 필승불패의 최강국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최대로 거세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조선

대면 조선 역시 그에 대응한 선전적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핵위협과 공갈을 비롯하여 조선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위협을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하였다.

대변인은 당면하여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부터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미국 본토의 안전이 보장될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통신은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퓌신, 리아 노보스페통신, 인메르락스통신과 <모스콥스카 가제타>, <모스콥스카 프소베데츠>, <아르구멘타 이 락트>, <프레스TV>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 이란의 파르스통신과 신문, <이란 데일리>, <헬난신문> <엔도이던트>, <알 슈부트>, <일본의 지지통신>, 미국의 CNN방송과 VOA방송도 <조선 핵연습을 시위, 미국과 남조선은 무자비하게 타격할것이라고 경고> 등의 제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전하였다.

발행위로 락인하였다.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제대한 <대북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지하고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것은 고정 및 이동형의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조조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조선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조선전선에서 모든 <대북심리전> 수단들을 초도파해버리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가 조선의 군사행동을 있을수 있는 조건과 환경까지 예견한 무차별적인 타격전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공개경고장 상에 내용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페통신, 이란의 파스퓌신, 도이칠란드신문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 프랑스신문 <파리 로>,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VOA방송, 일본의 코도통신, 지지통신도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의 요지를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 인도네시아부대통령 무함마드 유수프 칼라가 10일 연설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성원국들이 해적행위를 방지 위해 지역적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말라카해협에서 해적행위들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는 이를 근절하자면 아세안나라들이 안보분야에서 공동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특히 이 해협에 대한 공동순찰과 해상구조경비를 강화하여 해적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차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리아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인사 왈리드 알 무알람과 구비외무장 브루노 로드리게스 바렐라가 11일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세에 즈음하여 축전을 교환하였다.

그들은 축전에서 두 나라사이의 역사적인 친선관계가 자주권을 수호하고 안정불간섭, 자비와 친절에 맞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원칙에 기초하고있다는데 대해 밝혔다. 그들은 앞으로 수리아의 자주성과

라틴아메리카나라에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를 철폐하고 판파나모군사기지를 반환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일마전 세계적업권행동 콜롬비아에피프는 성명을 발표하여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는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오만무례한 간섭으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이 반부파봉쇄를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현 국회의원은 쿠바와의 친선을 위한 정치문화행사에서 미국이 반부파봉쇄를 즉시 철폐하고 판파나모군사기지를 반환하며 내부의의를 논의하는 반부파선언을 지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적대시정적으로 피해 입으면서 보건,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쿠바를 찬양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반대해 격하였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는 50여년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세계 중일 저들의 코앞에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쿠바를 눈에는 가시처럼 여긴 미국은 그를 발달하기 위하여 국제외의 반혁명분자들에게 자급과

무기를 대주면서 그들을 정부전복으로 부추겼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쿠바를 반대하여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 봉쇄와 고립압살행동을 감행해오고있다. 세기를 이어오며 진행되고있는 미국의 반부파봉쇄책으로 하여 쿠바가 입은 손실은 막대하다.

쿠바혁명을 발달하기 위한 미국의 반부파적대시정책은 비단 봉쇄뿐이 아니다.

그러나 쿠바는 미국의 책동으로 고립되어가는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지지성원 속에 더욱 굳건해지고 지역나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기지로 되고있다.

각성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서로 굳게 단결하여 반미투쟁에 파강히 떨쳐나서고있다.

지난 4월 마나나에서 있는 아메리카국가기구 수뇌자회의에서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베스니코회의를 발의성 토마당으로 된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한 미국의 독판적이 되는 허용될수 없으며 지배주의적 야망은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을 명시 증명해주고있다.

하기에 일마전 기자회견에 나선 볼리비아대통령은 미국이 반부파봉쇄를 철폐하고 판파나모군사기지를 반환할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위독산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나라인민들의 위독산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물리우고 있는 미국은 이것을 특별로 명심해야 한다.

김 국 철

자 연 피 해

무더기비
인디아의 우파르 브라데쉬주에서 12일 무더기비가 내리 인명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살림집이 붕괴되면서 9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당하였다.

현지에서 구조조치가 취해지고있다.

35°C 이상으로 올라가 1만 1 219명여이 열사병에 걸려 병원

에 실려졌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인디야에서 산사태 피해

쿠바가 반환을 요구하는 판파나모군사기지를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판파나모군사기지는 사실상 쿠바혁명의 한부분이다. 미국은 판파나모만이 군사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것으로 하여 그 연안의 일부부분을 1903년에 조처의 명목으로 강탈하고 그 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끌어들이어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9. 11사건이후에는 그곳에 감옥까지 설치해놓고 수백명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과 정신육체적 폭행 등 처형하는 인권유린행동을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이 군사기지를 쿠바반

반일시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14일 반일시위가 벌어졌다. 그곳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진행된 시위에 많은 관중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성노예피해자들의 사진들과 <우리는 정의의 바란다> 등의 글들이 쓰여진 프랑과 드를 들고 피켓시위를 하면서 성노예피해를 규탄하면서 그에 대해 인정하고 배상할것을 일본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심각한 물 위기

이란에서 최근 물위기가 심각해지고있다.

15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기후변화의 후과로 비내림량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많은 호수들과 우물들이 말라버렸다.

데다수 도시들에서 먹는물부족으로 주민들이 커다란 생활상 고통을 겪고있다 한다.

정부에서 물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국내총생산 감소

일본에서 2.4분기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6% 감소되었다.

17일 일본내각부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